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제2분과

건설, 방재 및 교통, 안전



글 | 高光珍
(Ko, Kwang Jin)

토질 및 기초/토목시공기술사
공학박사
(주)동남기초/사장

E-mail : jina2025@yahoo.co.kr



▲ 제2분과 전경

2009년 10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제39회 한일 기술사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오전에 주제 발표에 이어 오후부터 분과별 발표가 있었다.

발표순서는 한일 양측이 교대로 발표시간은 15분, 질문 5분을 가졌다. 첫 번째 발표는 양동주(인간공학) 기술사의 「산업현장 고령화에 따른 작업능률에 관한 발표」였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는 IMF 이후 최근 10년동안 산업재해율이 0.7%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산업현장의 고령화가 산업재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2018년 고령사회, 2027년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로 인한 문제점도 야기된다. 안전사고 증가, 작업능률 저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성의 저하, 기업경쟁력의 약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능력 향상의 문제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망된다는 내용을 각종 조사자료와 현장감 있는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되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일본측의 키시다 준조(岸田 順三)기술사는 「터널지보공의 최근현황」에 대해 NATM터널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Shotcrete, Rockbolt, Steel Support, Lining con'c, Invet 등 현재까지의 적용공법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암반의 내하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 다음 이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Blue Ocean Project In Incheon」이란 제목으로 안호철 기술사의 발표가 있었다. 인천대교와 접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서측해변을 매립한 부지에 간조와 만조의 차가 10여 메타에 이르는 해안 특성을 살려 여기에 해수갑문을 설치한 대규모 인공해수욕장(300m×1200m)과 해변공연장(10~20만석), 그리고 해수욕장 끝자락에 연하여 2km의 바닷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의 근거리 배후도시를 포함한 편리한 교통시설 등 입지여건이 좋은 점 등을 들어 성공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욕적인 발표를 하였다.

네 번째 발표는 일본의 마시코 쿠니히로(増子邦宏) 기술사의 「Project in Management & 안전」이란 제목으로 PM에 관해서 미국, 영국 등 외국사례와 8년 전 일본에서 제정된 종합기술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재무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해결과 Risk Management, 경제성, 인적자원, 정보, 안전, 사회환경의 5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한국철도의 양병남 기술사가 「전차노선 순환전류에 대한 사고방지대책」이란 제목의 발표였는데 순환전류란 발전소로부터 송출된 전류가 급전선, 급전분기장치를 통하여 전기차에 집전되기까지의 사이에 전차선 이외의 전차선로설비의 전선, 금구류 등에 흐르는 전류를 순환전류라 하며 이러한 순환전류에 의한 사고예와 이를 방지하는 대책, 개선방법에 대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과제를 체계있게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었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있으나 간과하기 쉬운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일본측 야마구치 유타카(山口豊) 기술사의 「지역방재의 과제와 대응」이란 제목으로

일본기술사회의 방재에 대한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자주 발생하는 지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1998년부터 시작한 순수 민간전문가(기술사 중심)로 구성하여 지역을 순회하면서 강연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방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안전의식을 고취는 물론 만일에 대비하는 일본인들의 방재시스템의 강점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감동을 준 것은 강연회 등에 참여주민이 만석을 이루는 예가 많았다고 하니 관에만 의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 탓으로만 돌리는 우리의 안이한 안전의식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였다. 우리도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한 민·관·산·학의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끝으로 발표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진지한 가운데 진행된 심포지엄은 39회라는 연륜이 말해 주듯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껴 뿌듯하였다.

금회 특히 제2분과에서의 흠이라면 분과의 좌장 한 사람이 발표자 전원의 통역을 담당케 한 점, 제한시간을 초과하여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질의시간이 축소 또는 제한되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여자 모두에게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다. 아울러 내년 시모노세키에서도 한일 양국의 더 좋은 발표가 기대된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21일〉